

(1) 노자

| | |
|-----------|---|
| 도(道) |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는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인간의 감각과 인식을 초월함 |
| 이상적 삶의 원리 | · 무위자연(無爲自然) : 인위적인 것이 없는 '스스로 그러함' 자연의 상태 · 상선약수(上善若水) :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강조함 |
| 이상 사회 | 소국과민(小國寡民) :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으로 이루어져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사회 |

(2) 장자

| | |
|------------|---|
| 도(道) |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어디에도 있는 편재성(偏在性)을 가짐 |
| 만물제동(萬物齊同) | 만물은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평등함.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귀천, 시비, 선악, 미추의 구별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따른 편견일 뿐임 |
| 소요유(逍遙遊) | 분별과 차별을 하지 않으며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경지 |
| 수양 방법 | · 좌망(坐忘) :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 · 심재(心齋) :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것 |
| 이상적 인간상 | 성인(聖人), 신인(神人), 지인(至人), 진인(真人), 천인(天人) : 수양을 통해 자유에 도달한 사람 |

(3) 황로학파(黃老學派) (한나라 초기)

- 황제와 노자 숭상 (각각 앞 글자를 따서 황로학파) :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바탕으로 다스리는 제왕의 통치술 강조함

(4) 오두미교(五斗米教) (한나라 말기)

- ① 도가의 경전인 도덕경을 암송함
- ②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세에서의 행복을 추구함
- ③ 빈민 구제 및 도덕적 선행을 강조함

(5) 현학(玄學) (위진 시대)

- ①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유교 경전을 해석함
- ② 청담(淸談) 사상 :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주제를 토론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상가들로는 죽림칠현(竹林七賢)이 있음

(1) 도가 윤리 사상

- 자연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님. 인간의 운명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표현. 또한 하늘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
- 자연 만물은 획일적 존재가 아니라 각기 나름의 특성을 지닌 존재.
- 자연의 운행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으나 목적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음.
- 도가의 본성은 윤리적, 도덕적인 본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성임.
- 우주 만물의 근원이나 만물의 변화 법칙.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는 참다운 도를 파악할 수 없음.
-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하여, 순수한 마음을 되찾아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자 함. (유교에서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주목하는 특징이 있음)
- 선악, 미추와 같은 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기에 분별할 수 없으며, 이것들은 모두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였음.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만물을 분별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보았음. (★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베이컨과의 공통점입니다.)
- 도는 만물의 어머니이며, 도를 본받은 인간과 하늘과 땅은 모두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 역지로 무슨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내지만, 인간사를 주재하는 것은 아님. (유교의 천인합일과 도가의 천인현동은 모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사상)
- 도가와 도교는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하여 도를 따르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도가는 철학적 사상임에 비해 도교는 불로장생과 신선술을 믿는 현세적인 종교.
- 수기(자신을 수양하는 것으로 유교에서 강조함)보다 양생을 강조하였으며, 자연에 따라 살기 위해 무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불교에서 이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 불교는 무지가 윤회의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 또한 마음을 깨끗이 하여 외물을 잊어야 한다고 보았음.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이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 잊는다는 것을 증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혜를 얻음으로써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2) 도교 윤리 사상

- 내단은 호흡을 가다듬는 방법. 들숨과 날숨을 최대한 천천히 하여 몸의 기를 자신의 의도대로 흐르게 함.
- 외단은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어 복용하고자 하는 방법. 단약이나 선약과 같은 물질을 활용하였음.
- 내단과 외단은 모두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 방법.
- 공과 격은 선행의 표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선악 구분을 분명하게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불로장생을 추구하였음. 나의 행복만큼이나 타인의 행복도 중요시하였고, 세속에서의 선행을 권장하였음.

(3) 노자

- 자연의 이치에 따라 무위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음. 그렇기에 규범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반대하였고, 자연의 흐름에 근거한 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인간이 너무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에 본래의 덕을 상실한다고 보아, 백성을 무지 상태에 있게 하는 정치를 추구했으며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작은 국가를 지향하였음. 그리고 무위무욕의 소박한 삶을 선호하였음.
- 통치자보다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중요시하였으며, 현명한 자를 숭상하지 않게 하였음.
- 헛된 지혜와 지나친 욕망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였음.
- 남에게 이로움을 주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생활할 것을 강조하였음.
-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므로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였음. 그리고 자연의 가치나 아름다움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음.

- 도는 스스로 그러한 것이며, 이러한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의 시비, 귀천 등은 없는 것.
- 되돌아감(反)을 도의 참된 운행 법칙으로 보았음.
- 인간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공을 세워도 뽐내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겸허와 부쟁의 덕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사물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였으며, 인간의 소박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중요시하였음.
- “학문을 하면 날로 지식이 늘지만, 도를 닦으면 날로 지식이 줄어든다. 지식이 줄고 줄어서 일부러 하는 일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무위하면 안 되는 것이 없게 된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 자연의 일부인 하늘은 도덕적 존재가 아님.
- 인간이란 도에 의해서 본성을 부여받고 생명을 지속하는 존재라고 보았음.
- 현자를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음. (예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위자연의 소박함을 잃은 것. 인위적 규범이 오히려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 보아 무위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음.)
- 인간은 자연에 대해 결코 우월성을 가지지 않음.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만물은 평등함. 그렇기에 자연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 이해하며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음.
- 인의예지와 같은 덕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의도가 개입되어있기에 하덕으로 취급하였음. 특히 예는 모든 혼란의 으뜸이 되는 것이라 하여 강하게 비판하였음.
- 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만물의 근원이자 자연의 운행 원리로 보았음.
- 도는 움직임과 작용이 있는 자연 만물의 법칙.
- 타고난 자연의 덕성을 보존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음.
- 선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상대적인 것.
- 도가 우주 만물의 근원이나 만물의 변화 법칙이지만, 일정한 법칙성을 갖고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다고 보았음.
- 인간 중심적인 상대적 관점으로 만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즉, 귀천, 선악, 윤리성과 같은 것들은 상대적일 뿐이기에, 이들을 상대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 문명을 떠나 소박하게 사는 작은 공동체를 추구하였으며,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힘이 없는 정치를 내세웠음.
- 도와 덕이 존중받고 진귀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 도가 만물을 생성한 것은,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작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이러한 도와 덕을 바탕으로 유교가 강조하는 인위적 규범을 부정하였음.
- 자연과 합치되는 무위와 무욕을 상덕으로 보았고, 인의예지를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하덕으로 보았음.

★ 공자와 노자의 차이점 : 공자는 예약을 선한 가치라고 여겼으나, 노자는 예약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심지어 해로운 것이라고 여겼음.

(4) 장자

- 대립과 차별, 세속적 가치, 자아의 정신세계에서 벗어나 사물을 차별하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음.

- 오감에 의한 지식은 관계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사물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음.
- 인간과 동물은 모두가 자신의 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음.
- 자연적이고 소박한 본성의 회복을 위한 수양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만물의 모습이 상대적임을 인식하고 소요의 경지를 지향해야 하며, 죄망과 심재를 통해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음. 또한 재물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이렇듯 일체의 구속을 잊어 진인, 지인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음. 이러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정신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 죄망과 심재를 주장하였고,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음을 강조하였으며, 나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망야(忘我)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음.
-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몰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러야 함.
- 자연과 하나가 되어 무위와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나아가 겸허와 부쟁의 덕을 최고의 덕이라고 주장하였음.
-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중심적 사고로 만물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음.
- 만물은 도에서 유래하였으며, 만물 속에는 도가 깃들어 있기에 인간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거나, 인간과 자연을 다른 실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음.
- 만물을 차별하는 것은 보잘 것 없는 지체에 속하고, 만물이 하나라는 생각은 큰 지체에 속함.
- 도는 어디에도 있는 편재성을 가짐. 이러한 도에서 덕이 생기며, 덕에서 구체적 사물이 생겨남.
- 귀천, 선악과 같은 것들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함. 유교에서 강조하는 도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일 뿐.
- 소박한 자연의 덕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예의와 같은 인위 규범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때 이상적 경지에 이를 수 있음.
- 예의는 자연적 덕성을 해칠 위험을 지니고 있음.
- 예의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규범.
-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음.
- 교화를 통한 본성의 개선을 주장하지 않았음.
- 자연의 질서에 위계가 있다고 보지 않았고, 만물이 평등하다고 보았음.
- 이론적 지식이나 분별적 지혜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음.

제시문 정리

(1) 노자

- 성인(聖人)은 탐욕하지 않도록 하여 얻기 어려운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며, 배우지 않음을 배우도록 하여 못 사람들의 잘못을 회복시키고, 만물이 스스로 그러함을 도와줄 뿐 감히 작위하지 않는다. ... (중략) ... 얻음과 잃음 중에 무엇이 더 병이 되는가? 만족할 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으며, 머무를 곳을 알면 위태롭지 않아, 길이 오래갈 수 있다.
- 하늘의 도(道)는 겨루지 않고도 이기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 성인 군주는 함[讎]이 없어도 백성들은 스스로 교화되고,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풍족해지고 순박해집니다.
-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심을 갖지 않게 하며, 지자(智者)라는 사람들이 감히 설치지 못하게 한다. …(중략)… 백성의 위에 있고자 한다면 말함에 스스로를 낮추고, 앞에 있고자 한다면 자기의 몸은 뒤에 두어야 한다.
- 성인은 상대적인 시비(是非)에 따르지 않고 자연[天]의 관점에서 봅니다.
- 통치자가 자연을 법칙(法則)으로 삼아, 다스림이 없이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은 저절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이는 것도, 욕망도 없게 합니다.
- 성인(聖人)은 만물을 소유하지도 않고 공(功)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백성들에게 무욕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 성인(聖人)이 조용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성인이 일을 도모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성인이 욕심내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 주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고 무욕하게 해준다.
- 통치자는 일을 도모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의 존재조차도 모를 때 가장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저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에 따라 소박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선한 사람이나 선하지 않은 사람이나 구분 없이 대하며,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하고 분별심을 갖지 않는다.
-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서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무위(無爲)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 최상의 덕(德)은 행함이 없고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하급의 덕은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인(仁)은 행하되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최상의 의(義)는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예(禮)는 행하되 응대함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한다.
- 통치자가 작위하지 않으면[無爲] 백성은 저절로 순화되고, 통치자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며, 통치자가 일을 벌이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진다.
- 으뜸의 덕(德)은 작위하는 바가 없고 아무런 의도도 지니지 않는다[無以爲]. 으뜸의 인(仁)은 작위하는 바는 있지만 아무런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으뜸의 의(義)는 작위하는 바도 있으며 어떤 의도도 지니고 있다[有以爲].
- 성인(聖人)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욕심이 없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순박해진다.
- 위대한 덕(德)의 모습은 도(道)를 따르는 데서 나오지요. 만물의 근본인 도는 참으로 황홀할 따름입니다.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함이 도의 쓰임새이지요.

(2) 장자

- 옛날에 어떤 바닷새가 노(魯)나라 교외에 날아들었다. 노나라 임금의 그 새를 맞이하여 묘당(廟堂)에서 연회를 열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진수성찬을 베풀어 환대하였다. 그러나 그 바닷새는 도리어 눈이 어지럽고 마음이 슬퍼서 고기 한 점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그것은 자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는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도(道)에는 본래 한계가 없고 언어에는 본래 항구성이 없는 것이다. …(중략)…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므로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리고, 올라미는 토끼잡이에 쓰는 도구이므로 토끼를 잡으면 올라미를 잊어버리듯이, 언어는 뜻을 표현하는 도구이므로 뜻만 알면 잊어버려야 한다.
- 생(生)과 사(死)를 같은 것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중략)… 참된 사람이어야만

참된 앎이 있다. 참된 사람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으며, 무엇을 하려고 꾀하지도 않는다.

- 천(天)이 하는 일과 사람이 할 바를 알면 지극한 것이다. 천이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천처럼 살아간다. 사람이 할 바를 아는 사람은 그의 지식이 헤아리는 바를 가지고 그의 지식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길러낸다. 그렇지만 지식이란 의거하는 바가 있는 뒤에야 합당하게 되는데 지식이 의거해야 할 바가 아직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내가 말하는 천이 사람이 아님을 어찌 알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이 말하는 사람이 천이 아님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 차이[差]의 관점에서 볼 때, 크대[大]고 하면 이 세상에 크지 않은 것이 없고, 작대[小]고 하면 작지 않은 것이 없다. …(중략)… 사람마다 지혜를 감추고 있으면 미혹됨이 없어지고, 사람마다 덕을 감추고 있으면 간사함도 없어진다. 밖으로 덕을 내세우는 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 이 세상에 가을 짐승의 털끝보다 큰 것은 없고, 세상 사람이 크다고 생각하는 태산은 오히려 작다고 할 수 있다.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장수한 자는 없고, 세상 사람이 장수했다고 생각하는 팽조는 차라리 일찍 죽은 자가 된다. 천지도 나와 함께 살아 있고, 만물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
-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한 이것 아닌 것도 없다. 저쪽에서 보면 보이지 않으나 이쪽에서 보면 보인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한다. …(중략)… 옳음이 있기에 그름이 있고 그름이 있기에 옳음이 있다. 그리하여 성인은 천(天)에 비추어 본다.
- 손발이나 몸을 잊고 귀와 눈의 작용을 멈추게 하라. 형체를 떠나 지식을 버려라. 그리하여 큰 통함과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면 한쪽으로 치우친 좋아함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 변화하니 일정한 것에 집착함이 없어진다.
- 성인(聖人)과 지혜를 버리면 큰 도둑이 없어진다. 성인이 만든 법을 없애면 백성들은 서로 의논을 하게 된다. 육률(六律)의 가락을 흘뜨려 놓고, 피리와 거문고를 불태워 없애면, 천하 사람들의 귀가 비로소 밝아질 것이다.
-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우물에서 향아리로 물을 퍼내어 발에 어렵게 물을 대는 노인을 보았다. 애를 쓰긴 하는데 효과는 아주 적었다. 젊은이는 물을 퍼내는 기계를 사용하면 힘들지 않게 물을 댈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로 인한 일이 생겨나고 그러면 마음이 기계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응대하였다.
- “훌륭한 정치란 어떤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훌륭한 왕은 자신의 공적이 온 세상에 미쳐도 자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며, 백성은 그를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 훌륭한 정치란 베풀어지고 있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만물을 각기 만족시키는 것이다.”
- 내 생명은 유한하고 지식은 무한하니,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추구하면 위태롭게 된다. 선(善)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하지도, 악(惡)을 저질러 형벌에 가까워지지도 말아야 한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을 떳떳함으로 삼으면 몸을 보존하고 생명을 온전히 하여 수명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 작은 새가 대붕(大鵬)의 비상을 비웃으며 “우리는 힘껏 날아 큰 나무에 오르려고 해도 이르지 못해 땅에 떨어진다. 어떻게 9만 리나 날아올라 남쪽으로 간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하물며 교외로 나가는 사람도 음식을 준비하고,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거늘, 이 작은 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으며 작은 지혜[小知]가 어찌 큰 지혜[大知]를 알겠는가?
- 들판에 커다란 가축나무 하나가 있었다. 그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외면해 버렸다. 그러나 그 덕분에 가축나무는 도끼에 찍히는 일도 누구에게 해를 당하는 일도 없이 자신의 수명을 다했다. 쓸모 없음[無用]이 곧 쓸모 있음[用]임을 아는 것이 큰 앎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한단 말인가?
- 오리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어 주면 괴로움이 따르고, 학 다리가 길다고 잘라 주면 아픔이 따른다. 본래 긴

-
- 것은 잘라서는 안 되고 본래 짧은 것은 늘여서는 안 된다. 인위[人]로써 자연[天]을 결코 해쳐서는 안 된다.
- 성인(聖人)은 그 은혜가 만대(萬代)에 미치는 경우에도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외부 사물을 그 자체에 맡겨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 친소(親疏)를 구별하여 사랑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고, 이해(利害)를 따지는 자는 군자가 아니며, 명예를 좇아 참된 자아를 잃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 곱자에 의지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깎아내는 것이고, 노끈으로 묶어 견고하게 하는 것은 타고난 덕(德)을 해치는 것이며, 예악(禮樂)을 행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 다름의 입장에서 보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멀지만, 같음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모두 하나이다. 성인(聖人)은 덕(德)에서 나오는 조화의 경지에서 자유롭게 소요(逍遙)한다.
 - 흰기러기는 하얗게 되겠다고 매일 목욕하지 않고, 까마귀는 까맣게 되겠다고 매일 먹물을 칠하지 않는다. 흑백의 우열은 논변할 가치가 없고, 명예를 다룬다고 위신이 서는 것도 아니다. 샘이 말라 물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물고기들은 거품으로 서로를 적셔 주면서 삶을 도모하지만, 이는 강과 호수 안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는 것만 못하다.